

이화의료원, 감염교육·연구센터 개소

국제적 수준 감염제어 체계 구축

감염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관리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환자안전 최우선 문화’에 기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훈련과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ETCI)’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4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의학관 1층 로비에서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어 감염교육센터 개소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병인 이화의료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이화의료원 관계자들과 학교법인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과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수영 양천구청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화대의 미생물학과 서주영 교수를 센터장으로 한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는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수준의 감염관리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감염제어 능력을 갖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사진 왼쪽 가운데)과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사진 오른쪽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감염 예방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감염관리에 철저한 병원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감염 역학 연구 및 관련 중개 연구, 감염 제어 연구 및 감염 교육 개발 연구를 수행해 병원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 성과를 의료계와 공유해 ‘환자안전 최우선 의료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 이어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은 ‘임상 감염 제어 연구’와 ‘감염 제어 중개 연구’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수행해 온 결과물을 공유하고 향후 감염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감염 연구의 수준을 한단계 격상해 병원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으며, 초청 연자들이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과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했으며 교육, 연구의 상호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센터 개소를 계기로 감염관리에 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병원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통해 병원 내 감염률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의료원은 감염 교육 및 연구를 주제로 매년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 감염 교육 및 연구 활동 결과를 공개해 환자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이사 패키지’ 첫 홈쇼핑서 4300콜 신기록

한샘 ‘이사 프리미엄서비스’

한샘이 가구, 중문, 포장이사 등을 패키지로 제안하는 ‘한샘 이사 프리미엄 서비스’ 첫 방송에서 자사 역대 최고기록인 4300콜을 달성했다.

8일 한샘에 따르면 이달 1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들이 가구, 중문, 포장이사, 입주청소 등 필수 상품을 패키지로 구매해 손쉽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획전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 한샘은 1시간 사이 총 4300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상담신청 후 직접 매장을 방문해 결제하는 모객 방송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제 방송 평균 콜 수보다 6배 가량 많은 숫자다. 한샘은 특히 새로 구입해야 할 것이 많은 이사고객 특성상 실제 구매 전환율



한샘 이사 패키지 중 하나인 ‘라이너스 중문’.

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방송은 지난 4월 시작한 ‘한샘입주 온라인 박람회’의 서비스를 홈쇼핑에 적용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 100여개 아파트에 신규 입주하는 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방송에서만 이사를 준비하는 모든 고객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에너지워너상 ‘대상·기술상’ 2관왕

나노직수 정수기·시루직수 정수기

코웨이는 자사의 나노직수 정수기와 시루직수 정수기가 ‘제 21회 에너지 워너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에너지 기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는 에너지 워너상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대상을 받은 나노직수 정수기는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기존 컴프레서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냉각 효율을 약 34% 향상시켰다. 또 새로운 인버터 컴프레서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해 컴프레서 가동률을 최소화했다.



코웨이 나노직수 정수기(왼쪽)와 시루직수 정수기.

시루직수 정수기는 RO 멤브레인 필터를 적용한 제품이지만 수조가 없는 직수 방식을 구현한 국내 유일의 정수기다. 고효율 빙축 냉각 시스템과 나선 유로형 온수 시스템을 활용해 정수기 내부의 냉각 및 가열이 이뤄지는 접촉 면적을 넓혀 에너지 효율도 높였다. /김승호 기자

장마철 제습기, 더 뽕송하게 사용하려면?

창문·문 닫아야 효율 높아
집안 전체보단 각 공간마다
돌아가며 가동해야 효과 ↑



(왼쪽부터)코웨이 인버터 제습공기청정기, 청호나이스 2 in 1 제습공기청정기. /각사

‘제습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창문과 문을 닫아야...’

여름철 장마가 한창 오라가락하는 가운데 뽕뽕해진 집안을 관리하기 위해 제습기를 활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8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도움을 받아 제습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우선 제습기 사용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창문이나 방문을 열어두면 제습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을 모두 닫고 밀폐된 상태에서 가동해야 한다.

보통 제습기를 켜 놓는 것과 함께 외부의 공기가 집안의 습기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외부의 습기까지 억지로 집안에 유입시켜 제거하기 때문에 제습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이에 따라 집안 전체를 한꺼번에 제습을 하기보다 방 1, 방 2, 방 3 등 일정 공간마다 밀폐를 시켜놓고 돌아가면서 제습을 해야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집에서 가장 습기가 많은 욕실도 문

을 닫고 제습기를 틀어놓으면 빠르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장마가 길어질 경우 빨래를 말리는 데도 제습기가 유용하다. 이 때도 젖은 빨래를 거실 등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 놓고 제습기를 가동하는 것보다는 작은 방에서 가습기를 돌리는 것이 빨래를 더욱 빠르게 말릴 수 있다.

거실, 방 등 특정공간뿐만 아니라 여름철 습기가 많고 눅눅해진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관리하는데도 제습기가 좋다.

이불 등을 햇볕에 널어놓기 쉽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이불장이나 옷장 문을 열어놓고 제습기를 가동하면 더욱 뽕뽕송송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름철엔 비 맞은 우산이나 젖은 신발로 인해 습기가 많은 신발장도 제습기를 이용하면 좋다. 다만 이 때는 신발장문을 열어놓고 제습기 바람방향을 신발장쪽으로 향하게 뒀다.

업계 관계자는 “제습기를 가동하고

물이 고이는 물통을 그대로 방치해놓기도 하는데 이는 위생에 좋지 않다”면서 “물통은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세척과 건조를 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융합형인 제습공기청정기가 인기가. 하나의 제품으로 제습과 공기청정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웨이 ‘인버터 제습공기청정기(A PD-1015B)’의 경우 파워제습, 절전제습, 청정제습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 파워제습의 경우 하루 최대 13.2L의 제습이 가능하며 스스로 알아서 최적의 습도(40~60%)로 빠르게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호나이스의 ‘2 in 1 제습공기청정기(AD150)’는 1일 제습용량이 최대 17.8L이며 실내 공기오염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상태에 따라 무드램프로 표시해 줘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실내 오염도를 알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홈쇼핑 모바일앱 이용자 3년 연속 ‘업계 1위’

홈쇼핑 모바일앱이 순이용자수에서 3년째 업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모바일퍼스트’ 전략을 통해 모바일 주문 비중이 지난 1·4분기 기준으로 82%를 넘어서는 등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다.

8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웹사이트 순위 분석업체 코리아 클릭이 5월 기준으로 발표한 모바일 앱 자사 순이용자 수 순위에서 홈앤쇼핑이 홈쇼핑업계 1위를 기록했다. 홈앤쇼핑은 2015년 5월부터 선두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까지 포함한

종합 순위에선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홈앤쇼핑은 2017년 7월부터 모바일 전용 방송 서비스인 ‘모바일 2채널’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이 채널은 TV쇼핑과 동일한 방식으로 쇼호스트의 안내를 통해 TV상품 외 다른 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홈앤쇼핑만의 특징인 10% 할인과 10% 적립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모바일 특가샵’도 열고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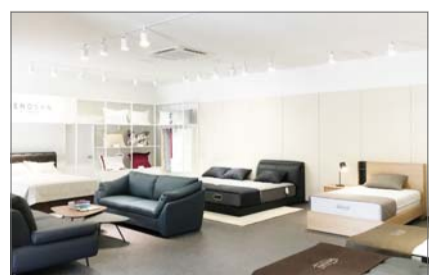
시몬스침대 ‘테크니컬 존’ 갖춘 시흥대야점 오픈

시몬스침대는 경기 시흥시에 ‘시흥대야점’을 새로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시몬스 시흥대야점은 지하철 서해선 시흥대야역 인근 시흥 가구 단지 내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곳에선 시몬스 침대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를 비롯해 감각적인 디자인의 침대 프레임,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 베딩과 퍼니처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시몬스 고유의 포켓스프링과 최고급내장재들이 갤러리의 아트피스처럼 전시돼 있는 ‘테크니컬 존(Technical Zone)’도 마련했다.

시몬스 침대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시몬스침대 경기 시흥 대야점 내부 전경.

‘뷰티레스트’는 시몬스 고유의 기술력인 포켓스프링을 적용한 대표 제품이다

시몬스 침대는 시흥대야점 오픈을 기념해 해당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준다. /김승호 기자